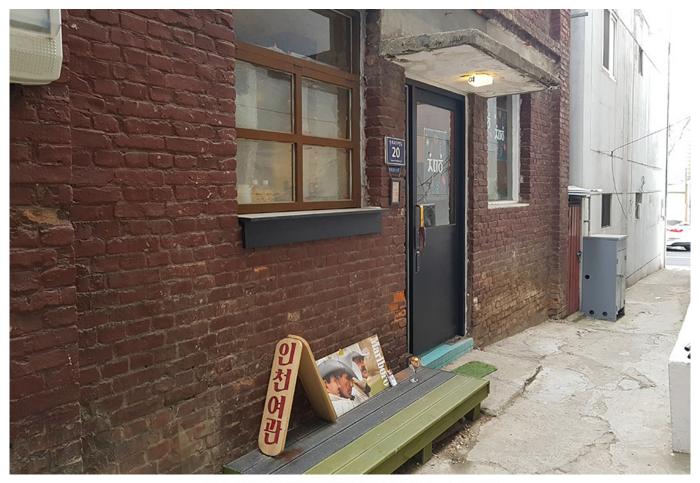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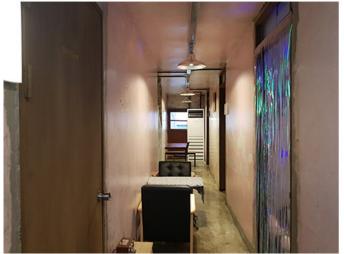


0000x00000 0 00 00 <000000>



건물 사이의 후미진 샛길에 숨어있는 '인천여관X루비살롱'







버려진 낡은 여관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문화공간으로 탄생한 '인천여관X루비살롱'



지난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여관X루비살롱'의 2층 전시장에서 세 번째 전시 〈춒먕횺백화점〉이 열렸다.



이번 전시 〈춒먕횺백화점〉은 기존의 공간 구조물에 자연스럽게 작품들을 배치함으로써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친근하게 풀어냈다.

00000 000 0000 000 0000 20200 000 00 000 000 00000 0000 00





낡고 허름한 여관 방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연출이 돋보인다.